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동향분석

김영규* · 윤천성**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관련된 학위논문 분석을 통해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의 현재 상황과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사이트인 RISS에서 검색한 논문 77편 중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 17편과 논문 확인이 불가능한 논문 2편을 제외한 58편을 분석하였다.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5천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아유르베다는 대체의학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연구가 제한적이며, 유용성에 비해 연구의 빈도가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유르베다를 표준화하고, 활발히 연구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해 보면 첫째, 1997년 발표된 이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으나 박사학위 논문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향후 질적인 성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공별로 아유르베다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뷰티산업분야가 가장 많았고, 상담심리, 한의학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연구 주제별로 실천적 접근에서 건강과 미용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유르베다 연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척도개발이 요구되며, 경영이나 리더십, 심리 분야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장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여 학술지를 포함한 전체 아유르베다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국내 아유르베다의 학위논문에 관한 동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아유르베다, 석박사 학위논문, 동향분석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E-mail: kairoskyk@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2016년 11월 5일, 수정일: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4일

I. 서론

현대 사회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가져왔다. 이러한 질적 성장으로 인해 인간이 ‘잘 사는 것’ 즉, 웰빙(well-being)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심리학분야에서는 웰빙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y well-being)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별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정호, 2006). 이중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 소득수준, 사회적 지원 등과 같은 외적요인과 성격, 자아존중감, 대처방식 등과 같이 생활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내적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Shu, Lucas, & Smith, 1999). 이중에서 성격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안정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McCare & Cota(1991)는 성격의 내적이며 기질적인 측면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비해, 외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은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질적인 성격특질은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teel et. al.(2008)은 기질적인 성격이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신경계를 통한 생물학적 기체에 의해서일 것이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측면의 성격특질은 주관적 웰빙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하였다(서경현 외,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기질에 기인하는 성격특질의 직접효과는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주제인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을 소우주로 주장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5대 요소인 공간(空, akasha), 바람(風, vayu), 불(火, tejas), 물(水, jala), 땅(地, prthivi)을 기반으로 구성된 특질에 따라 바타(vata), 피타(pita), 카파(kapha)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질은 사람의 체형과 체질로 구분하며 성격적 특질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한 식이요법, 정화요법, 마사지요법, 허브요법, 아사나요법, 마르마요법 등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아유르베다 만트라 명상이 노인의 우울, 고독감, 자살생각, 대인관계,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유르베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유르베다의 유용성에 비해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국회도서관과 RISS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아유르베다’와 ‘AYURVEDA’, ‘AYUREVEDA’를 검색한 결과 최초 연구가 발표된 1997년 이후 2016년 12월 현재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의 개수가 58건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유르베다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유르베다

를 포함한 연구들의 동향분석을 실시하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आयु르베दा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 되었다. ‘아유르베다 (Ayurveda)’는 생명을 뜻하는 ‘아유(Ayu)’와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베다(Veda)’가 합쳐져 그 어원을 이루고 있다(박명지, 2015). 아유르베다에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체(Body)와 정신(Mind), 그리고 영혼(Soul)의 복합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세가지의 균형을 치료의 근간으로 여긴다.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과 인체의 균형을 통해 자신이 내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인 ‘공간(空, akasha)’, ‘바람(風, vayu)’, ‘불(火, tejas)’, ‘물(水, jala)’, ‘땅(地, prthivi)’을 인간의 신체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와 인간의 신체의 관련성을 보면 인간의 몸안에는 많은 공간이 있는데, 입, 코, 소화기관, 순환기관, 배, 가슴, 모세관, 임파관, 조직, 세포 등에 있는 빈 공간이 그런 것들이다(박종운, 1997). 이러한 공간은 연결의 개념을 나타내며, 모든 물질적 매체 사이의 상호교환, 소통과 자기표현을 의미한다. 바람은 운동성을 지닌 요소로 근육의 움직임, 심장박동, 허파의 팽창과 수축, 위벽과 소화 기관의 운동 등으로 나타난다(박종운, 1997). 이러한 바람은 미세한 움직임과 변화라는 개념을 나타내며 방향, 속도, 변화 등을 의미한다. 불은 물질의 대사작용이 근원으로 소화기관 내에서 작용하며, 뇌의 회색질 부분에서 지성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은 체온, 소화, 사고, 시각 등의 요소로 나타난다(박종운, 1997). 이러한 불은 빛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며 시각과 이동 등을 의미한다. 물은 소화액의 분비, 침분비, 점막과 원형질, 세포질 등에서 나타난다(박종운, 1997). 이러한 물은 유동성의 개념을 나타내며 흐르는 동작, 삶을 의미한다. 땅은 육체에 있어 단단한 성분의 뼈, 연골, 손톱, 근육, 힘줄, 피부, 머리카락 등의 요소로 나타난다(박종운, 1997). 이러한 땅은 견고함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며 안정성, 저항 등을 의미한다. 아유르베다의 다섯가지 요소의 개념과 기본 속성은 <표 1>과 같다.

〈표 1〉 आयुर्वेदा의 다섯가지 요소의 개념과 기본 속성

요소	개념	감각기능 (감각기)	기본속성
공간	연결, 자기표현	청각(귀)	미세한 소리, 저항과 경계없이 가볍게
바람	미세한 움직임, 변화	촉각(피부)	압박감, 한랭감, 거침, 건조함
불	빛, 지각과 이동	시각(눈)	불, 빛, 활동성, 깨끗함, 신랄함
물	유동성, 삶	미각(혀)	액체, 한랭감, 점착성, 부드러움
땅	견고함, 저항	후각(코)	고무, 무거움, 견고함, 느낌, 정지

*출처 : 박중훈(1997), 고대 인도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연구자 재구성

아유르베다는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사람의 체질을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트리도샤(tridosha)’라 하였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체질 요소는 별개의 요소가 아닌 한사람 안에 모두 내재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지배적인 요소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바타, 피타, 카파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체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바타(vata) 체질

바타는 공간과 바람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공간과 바람의 미세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바타 체질의 특성은 몸속의 공기, 혈액, 음식, 신경, 노폐물, 생각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 혈액이나 산소의 움직임이 멈춘다는 것은 생체기능의 정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바타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바타 체질은 가벼움, 움직임(불규칙), 차가움(시원함), 건조함, 거침, 미세함, 맑음의 성질을 지녔다. 바타 성질의 균형이 깨지면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경우 정신이 맑지 못하고, 위에 가스가 차며, 신경과민, 고혈압 등이 생기기 쉽다. 반면 부족한 경우 울혈, 변비와 함께 매사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해진다. 바타 체질을 지닌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이들은 매우 크고 가늘거나 매우 작고 덜 발달된 체격을 지녔다. 체형은 살집이 전혀 없고 몸이 매우 가벼운 특징을 지녔다. 이들의 피부상태는 건조하며 추위에 약하다. 건조한 성질을 지닌 이들은 땀을 거의 흘리지 않고, 변은 딱딱하며, 소변의 양도 매우 적다. 바타의 성격적 특성으로는 이들은 부산스럽게 행동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깊은 지식이 부족한 편이고, 이해력은 빠르지만 기억력이 나쁘거나 불규칙적이다(정미숙, 2014). 또한 말을 할 때 이들은 말의 속도가 빠르며 말수 또한 많은 편이다. 이들은 감정적인 동요, 스트레스, 적의가 있을 때 바로 신경성 소화불량이 일어난다(Gerson, 2002; 정미숙, 2014에서 재인용). 이들의 성질은 급하고 자주 변하

지만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다. 이들은 주로 신경계 질환, 동통, 관절염, 정신적 불안정 등과 같은 질병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성을 지닌다.

2) 피타(pitta) 체질

피타는 불과 물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물질의 대사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불의 근원과 육체조직, 기관 등의 기능에 활력을 주는 물 요소의 조합이 피타 체질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피타 체질의 특성은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 등이 관련되어 있다. 피타 체질은 더움, 예리함, 신맛, 기름진(약간의 끈적거림), 뜨거움, 가벼움(뜨거우면서 가벼움), 움직임(가동성), 액성, 산성, 매운 맛의 성질을 지녔다. 피타 성질의 균형이 깨지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경우 여드름이 발생하고, 내분기계 이상이 초래되어 위궤양에 걸리기 쉽고, 화를 잘 낸다. 반면 부족한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행동이 느려지고 통찰력이 흐려진다. 피타 체질을 지닌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이들은 중간정도이며 보통의 발달된 체격을 지녔다. 체형적으로 중간형이며 좋아 보이는 근육질의 장을 지녔다. 이들의 피부상태는 따뜻하고 습하며 윤기 있고 부드러우며, 사마귀나 주근깨, 여드름 등이 잘 생긴다. 지성(脂性)인 이들은 갈증을 자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며, 이들의 소변의 색상은 노란색을 띄며 양이 많다. 피타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들은 지적이고, 명민하며, 사려 깊다. 총명하며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세상을 보지만 날카롭기 때문에 완고하고 비판적이거나 독선적일 수 있다. 화를 쉽게 내는데, 이는 새롭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주된 반응이며, 공격적이거나 남을 휘두르는 경향도 있다(정미숙, 2014). 이들의 활동량과 인내심은 보통 정도이다. 이들은 주로 발열, 감염, 염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질병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3) 카파(kappa) 체질

카파는 물과 흙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물의 유동성과 땅의 견고함의 특성을 지닌 카파 체질의 특성은 신체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일 뿐 아니라 조직 보호와 유지, 영양을 공급하는 안정성과 점착성이 관련되어 있다. 카파 체질은 무거움, 점성, 안정성, 차가움(아이스크림과 같은), 느림, 기름짐(기름기 있는 음식물), 견고성, 부드러움, 고요함, 단맛의 성질을 지녔다. 카파 성질의 균형이 깨지면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경우 비만, 부종, 당뇨, 고혈압, 폐렴, 비강 울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반면 부족한 경우 호흡기 문제가 생겨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위경련 등이 생길 수 있다. 카파 체질을 지닌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이들은 두툼하고 크고 넓은 잘 발달된 체격을 지닌다. 체형은 대개 무겁고 약간 비만형의 특징을 지녔다. 이들의 피부 상태는 두툼하고, 희고 습하며 차고

매끄럽다. 이들은 땀은 별로 없지만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많은 양을 흘리게 된다. 소변, 대변도 보통이며 색깔도 맑다. 이들은 습기나 추위, 찬 것에 예민하고 면역력이 높다. 카와 체질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들은 감정적이다. 긍정적으로는 사랑, 헌신, 충성심이 많고, 부정적으로는 욕심, 집착이 많아 탐욕스러울 수 있다(정미숙, 2014). 이들의 행동은 느리고 인내심이 많다. 대화 할 때 말의 속도가 느리고 반복적이며 낮고 조화롭게 대화를 한다. 이들의 성질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보수적인 경향성을 지니며,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견실하며 안정적이다. 이들은 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취하고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 이들의 기억력은 보통이며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이들은 호흡기질환, 천식, 부종, 비만 등의 질병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성을 지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논문정보를 제공하는 RISS에서 제목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하였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 나열된 논문 중 최근 논문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한 keyword는 ‘아유르베다’와 ‘Ayurveda’, ‘Ayureveda’로 선정하여 검색한 결과 77편의 학위논문이 검색되었다. 이중 아유르베다가 간단하게만 언급된 경우와 관련성이 없는 논문 17편을 제외하였다. 또한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논문 1편, 오류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논문 1편을 제외한 58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류기준

1) 연구시기별 분류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세 시기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아유르베다 연구는 1997년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후 2002년까지 후속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3년에 두 번째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유르베다가 최초 발표된 1997년을 포함하여 아유르베다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2005년까지를 아유르베다 연구의 도입기로 정의하고 제1시기로 분류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유르베다를 활용해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편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였으므로 아유르베다의 형성기로 보고 제2시기로 분류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2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문의 빈도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본 연

구자는 과도기로 정의하고 제3시기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997년부터 2005년을 도입기인 제1시기로, 2006년부터 2010년을 형성기인 제2시기로, 2011년부터 2016년을 과도기인 제3시기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별 분류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로 분류해 그 빈도를 기록하였다.

3) 연구목적별 분류

아유르베다의 연구 목적을 분류하기 위해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에니어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미선(2008)의 연구 분류기준이 아유르베다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충분히 적용가능 하다는 판단에 이를 토대로 아유르베다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아유르베다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아유르베다의 기본 개념, 체질별 특성 등에 대한 탐색과 고찰을 주로하는 이론적 접근과 아유르베다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활용한 연구인 실천적 접근으로 정의하여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대분류를 기본으로 아유르베다의 연구 목적에 따라 중분류로 구분하였으며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유르베다 연구의 주제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아유르베다 이해	심리적 접근, 의학적 접근, 체질론 탐구, 유형론 탐구, 고찰, 번역
	아유르베다 분석	식이요법, 색채심리, 보석처방, 마사지, 체형별 건강관리(실버세대)
실천적 접근 (효과 및 활용)	건강과 미용	체중관리, 두피, 모발, 피부관리, 노화, 면역, 체질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무력감, 중독
	상담과 심리	자아존중감, 공격성, 노년기 심리, 주의집중
	선호도 및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시기에 따른 연구 종류별, 연구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목적별로 각 문항의 빈도수를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시기별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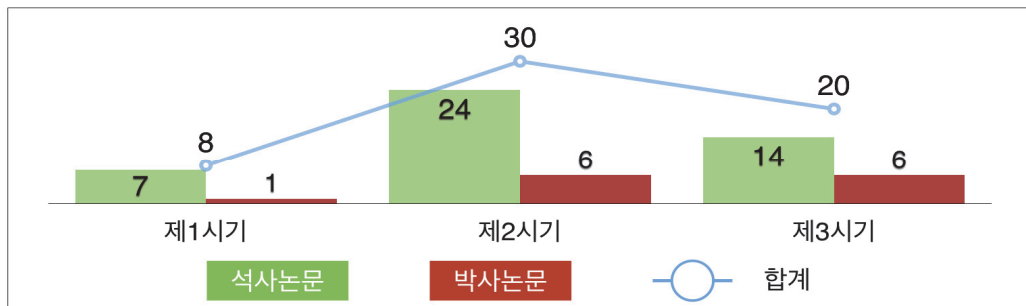
1) 연구종류별 동향분석

국회도서관과 RISS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유르베다의 연구가 최초로 등록된 199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제1시기에서 제3시기로 세분화하여 연구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의 연구 종류별 분포

논문종류 \ 년도	제1시기 (97-05)	제2시기 (06-10)	제3시기 (11-16)	계
박사	1(1.7)	6(10.3)	6(10.3)	13(22.4)
석사	7(12.1)	24(41.4)	14(24.1)	45(77.6)
계	8(13.8)	30(51.7)	20(34.5)	58(100.0)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총 58편이며 그중 석사학위 논문은 45편(77.6%), 박사학위 논문은 13편(22.4%)으로 주로 석사논문이 연구되었다. 이는 국회도서관과 RISS를 통해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석결과 최초 연구가 발표된 1997년 이후 2002년까지 아유르베다 관련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1편이 발표되면서 2005년까지 7편(12.1%)의 석사논문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제1시기에는 석사학위 7편(12.1%), 박사학위 1편(1.7%)의 총 8편(13.8%)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제2시기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된 논문은 석사논문 24편(41.4%), 박사논문 6편(10.3%)로 제1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시기에 박사논문 6편이 발표되어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기한 시기라 판단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유르베다가 본격



적으로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배경은 선행 연구를 통해 유추 할 수 있는데, 박황진(2013)이 1980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의약학 관련 분야에서 발표된 웰빙 관련 국내학술지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웰빙과 관련된 키워드의 연구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웰빙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웰빙에 대한 관심은 인도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아유르베다의 다양한 기법과 요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제3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석사학위 논문이 14편(24.1%), 박사학위 논문이 6편(10.3%) 발표되었다. 이는 석사학위 논문은 제2시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박사학위 논문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아유르베다에 대한 관심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아유르베다 연구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분야별 동향분석

아유르베다가 주로 연구되는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 전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아유르베다 연구의 시기에 따른 전공별 연구동향

전공별 \ 년도	제1시기 (97-05)	제2시기 (06-10)	제3시기 (11-16)	계
상담심리	2(3.4)	8(13.8)	4(6.9)	14(24.1)
미용학(향장미용학, 미용보건학, 미용예술학)	3(5.2)	8(13.8)	2(3.4)	13(22.4)
한의학(대체의학, 수기치료, 자연치유, 제3의학)	1(1.7)	5(8.6)	3(5.2)	9(15.5)
요가학	-	1(1.7)	5(8.6)	6(10.3)
경영학(미용산업경영, 뷰티예술경영)	-	1(1.7)	3(5.2)	4(6.9)
교육학	1(1.7)	2(3.4)	-	3(5.2)
의상학	-	2(3.4)	-	2(3.4)
식품영양학	-	2(3.4)	-	2(3.4)
철학	-	-	2(3.4)	2(3.4)
신학	1(1.7)	-	-	1(1.7)
생물학	-	1(1.7)	-	1(1.7)
보건학	-	-	1(1.7)	1(1.7)
합계	8(13.8)	30(34.5)	20(34.5)	58(100.0)

1997년 아유르베다가 처음으로 연구된 분야는 한의학이다. 이후 다양한 전공에서 아유르베다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제1시기에는 미용학이 3편(5.2%)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 졌으며, 상담심리 2편(3.4%), 교육학 1편(1.7%), 신학 1편(1.7%)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제2시기에는 상담심리 8편(13.8%)과 미용학 8편(13.8%)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한의학 5편(8.6%), 의상학 2편(3.4%), 식품영양학 2편(3.4%), 요가학 1편(1.7%), 경영학(미용산업경영) 1편(1.7%), 교육학 2편(3.4%), 생물학 1편(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시기에는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아우르베다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제3시기에는 요가학이 5편(8.6%)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상담심리 4편(6.9%), 한의학 3편(5.2%), 경영학(미용산업경영, 뷰티예술경영) 3편(5.2%), 미용학 2편(3.4%), 보건학 1편(1.7%)순으로 나타났다. 요가학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인도의 전통의학에 기반한 아우르베다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우르베다의 연구가 진행된 전공의 빈도수를 볼 때 상담심리 분야가 14편(24.1%)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 이는 아우르베다가 상담 현장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전공 분야는 미용학으로 13편(22.4%)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은 경영학에서 4편(6.9%)의 논문을 발표 하였는데 전공이 미용산업경영과 뷰티예술경영인 것을 감안하면 미용학과 경영학을 포함한 총 17편(29.3%)가 뷰티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재정리하면 아우르베다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뷰티산업분야로 29.3%이며, 상담분야 24.1%, 한의학 15.5%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아우르베다는 미용, 심리, 대체의학 등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학이나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확장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연구방법별 동향분석

아우르베다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으며 본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4가지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방법에 따른 국내 아우르베다 연구동향

연구방법 \ 년도	제1시기 (97-05)	제2시기 (06-10)	제3시기 (11-16)	계
문헌연구	5(8.6)	11(19.0)	11(19.0)	27(46.6)
실험연구	3(5.2)	14(24.1)	4(6.9)	21(36.2)
조사연구	-	5(8.6)	3(5.2)	8(13.8)
프로그램 개발	-	-	2(3.4)	2(3.4)
합계	8(13.8)	30(51.7)	20	58(100.0)

연구결과 현재까지 아우르베다 연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는 총 27편으로 전체연구의 4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방법은 실험연구이며 21편으로 전체연구의 36.2%를 차지한다. 주요 실험연구로는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오일, 마사지, 약용식물, 명상 기법과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유르베다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체중변화, 혈행, 활성산소 감소, 노화 등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연구는 8편(13.8%)으로 사상체질과의 체질적 특성을 비교한 것과 신호도 및 만족도, 체질별 체중관리, 모발관리방법에 대해 설문지법으로 분석하였다. 빈도수가 가장 낮은 연구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편(3.4%)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아유르베다는 주로 문헌연구를 선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험을 통한 결과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아유르베다의 연구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유르베다 체질 특성에 따른 척도의 개발과 아유르베다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3. 연구목적별 동향분석

아유르베다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목적에 따른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동향

대분류	중분류	제1시기 (97-05)	제2시기 (06-10)	제3시기 (11-16)	계
이론적 접근	아유르베다 이해	5(8.3)	9(15.0)	4(6.7)	18(30.0)
	아유르베다 분석	1(1.7)	2(3.3)	5(8.3)	8(13.3)
실천적 접근	건강과 미용	2(3.3)	11(18.3)	7(11.7)	20(33.3)
	프로그램		2(3.3)	2(3.3)	4(6.7)
	정신건강	-	4(6.7)	1(1.7)	5(8.3)
	상담과 심리	-	3(5.0)	1(1.7)	4(6.7)
	신호도 및 만족도	-	1(1.7)	-	1(1.7)
합계		8(13.3)	32(53.3)	20(33.3)	60(100.0)

연구목적에 따른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분류 기준으로 실천적 접근이 총 34건(56.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론적 접근이 26건(43.3%)을 차지하였다. 이론적 접근에 비해 실천적 접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지만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별로 볼 때 도입기인 제1시기에는 이론적 접근의 연구가 6건(10.0%), 실천적 접근의 연구가 2건(3.3%)으로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아유르베다의 활용기인 제2시기에는 이론적 접근의 연구가 11건(18.3%), 실천적 접근의 연구가 21건(35.0%)으로 아유르베다의 효과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시기에는 이론적 접근의 연구가 9건(15.0%), 실천적 접근의 연구가 11편(18.3%)이 실시되었다. 특히 3시기에는 이론적 접

근으로 아유르베다의 이해에 대한 연구보다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도입기인 제1시기가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적립하는 시기였다면, 형성기인 제2시기는 아유르베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기, 과도기인 제3시기는 다양한 아유르베다의 활용을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편수가 58편인데 비해 목적에 따른 분류에 60건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2시기에 해당하는 2007년 비만과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와 2009년 면역과 스트레스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두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어 목적에 따른 분류 건수는 60건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시기(1997-2005)의 연구동향 분석 : 도입기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가 시작된 도입기인 제1시기에는 박사논문 1편과 석사논문 7편의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유르베다의 첫 논문은 1997년에 발표된 박종운의 한의학분야의 박사논문이다. 그는 고대 인도의학의 형성과 체계에 대한 고찰 연구에서 아유르베다의 형성 배경과 체계에 대해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이후 정미숙(2003)은 인본주의 심리학, 이영미(2004)는 융의 심리학과 비교를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유르베다를 분석하였다. 이를 포함해 제1시기에는 이론적 접근으로 아유르베다의 이해 영역이 5건(8.3%), 아유르베다 분석 영역이 1건(1.7%)가 연구되었으며, 실천적 접근으로 건강과 미용 영역이 2건(3.3%) 연구되었다. 이처럼 도입기는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는 시기로 한의학분야에서 시작하여, 뷰티산업분야, 상담분야, 교육분야, 신학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시기로 아유르베다 연구의 기초가 마련된 시기라 할 수 있다.

2) 제2시기(2006-2010)의 연구동향 분석 : 형성기

형성기인 제2시기는 박사논문 6편과 석사논문 20편으로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제1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실천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시기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과 미용 영역에서 11건(1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신건강 영역 4건(6.7%), 상담과 심리 영역 3건(5.0%), 프로그램 영역 2건(3.3%), 선호도 및 만족도 영역 1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시기는 건강과 미용 영역에 대한 아유르베다의 활용이 증가한 시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접근으로 아유르베다 이해 영역에 9건(15.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유르베다 이해 영역에서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사상의학과의 체질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애니어그램 유형과 비교한 연구가 1건 있다. 아유르베다 분석 영역의 연구가 2건(3.3%)이 있는데, 체질 특성에 따른 색채심리 고찰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유르베다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제2시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유르베다의 효과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아유르베다는 주로 뷰티산업분야에서 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상담분야, 대체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유르베다는 주로 활용되는 분야 외에도 패션디자인, 식품영양학, 교육학, 요가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경영학 등의 분야로 아유르베다 연구를 확장한다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제3시기(2011-2016)의 연구동향 분석 : 과도기

과도기에 해당하는 제3시기에는 박사논문 6편과 석사논문 14편으로 20편의 논문이 발표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2시기에 비해 아유르베다의 연구 빈도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종류별로 보면 주로 석사학위 논문의 빈도수가 감소하였으나 박사학위 논문은 제2시기 6편, 제3시기 6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연구의 양적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뷰티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요가학, 상담심리, 한의학, 철학, 보건학 순으로 연구되었다. 제3시기에 이루어진 실천적 접근의 연구 빈도를 보면 건강과 미용 영역의 연구가 7편(11.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 졌으며, 프로그램 영역 2편(3.3%), 정신건강 영역 1편(1.7%), 상담심리 영역 1편(1.7%)의 순으로 연구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유르베다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성 연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론적 접근으로는 아유르베다 분석 영역에서 5편(8.3%)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체질에 따른 실버세대 건강관리, 마사지, 보석처방, 식이요법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아유르베다 이해 영역에서 4편(6.7%)의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한의학의 체질에 따른 아유르베다 체질특성에 대한 비교고찰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제3시기에는 아유르베다의 연구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실시된 시기였다.

V.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분석 하였다. 199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전수조사 하여 연구의 종류별, 연구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목적별 측면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아유르베다의 발전과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유르베다 관련 국내학위논문은 1997년에 한의학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후속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3년 인본주의 심리학, 2004년 용의 심리학과의 비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제1시기(1997-2005)에는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시기는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적립하는 이론적 접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2시기(2006-2010)는 총 30편의 논문으로 제1시기에 비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실천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3시기(2011-2016)에 발표된 논문은 총 20편으로 제2시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발표 논문의 편수가 감소 하였으나 이는 석사학위 논문의 빈도가 주로 감소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빈도는 제2시기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아유르베다의 연구가 감소하였으나 향후 아유르베다 연구의 질적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분야별로 볼 때 아유르베다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가 뷰티산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산업분야는 미용학(향장미용학, 미용보건학, 미용예술학)의 13편(22.4%)과 경영학(미용산업경영, 뷰티예술경영)의 4편(6.9%)으로 총 17편(2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심리 14편(24.1%), 한의학(대체의학, 수기치료, 자연치유, 제3의학) 9편(15.5%), 요가학 6편(10.3%), 교육학 3건(5.2%), 의상학 2편(3.4%), 식품영양학 2편(3.4%), 철학 2편(3.4%), 기타(신학, 생물학, 보건학) 3편(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유르베다는 뷰티, 건강, 심리,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경영학이나 리더십, 교육학 분야로의 연구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문헌연구가 27편(4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험연구 21편(36.2%), 조사연구 8편(13.8%), 프로그램 개발 2편(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아유르베다 연구의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개발과 표준화된 척도 개발 등이 요구된다.

넷째, 아유르베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결과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실천적 접근에서 건강과 미용 영역이 20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영역 5건(8.3%), 프로그램 영역이 4건(6.7%), 상담과 심리 영역 3건(5.0%), 선호도 및 만족도 영역 1건(1.7%) 순으로 나타나 아유르베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건강과 미용 분야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아유르베다의 요법인 명상, 단식, 요가,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식이요법 등이 개인의 건강과 미용영역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건강과 미용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를 상담심리, 경영학 같은 다양한 분

야에 적용 한다면 아유르베다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유르베다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첫째, 아유르베다의 주요 연구 분야가 뷰티산업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시도를 통해 아유르베다의 분야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방법이 문헌연구와 실험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유르베다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반인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유르베다의 연구목적이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심리적인 요인이나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2. 한계 및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논문 검색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RISS에서 키워드로 학위논문을 검색하여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술지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유르베다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 현재까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함 방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의 국내 연구동향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이므로 아유르베다 연구의 경향성만을 분석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나타난 체질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한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유르베다의 학위논문에 관한 동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데 본 논문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계미량(2009).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 연구 : Caraka Samhita 의 Sarirasthanam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곽희영(2005). 체형관리 프로그램이 복부비만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 권옥분(2014). 아유르베다와 현대 식이요법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가빈(2012). 인간체질에 따른 보석처방방법 비교 연구 : 베다 점성학, 아유르베다, 음양오행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대옥(2012). 동양의 수기 마사지 비교연구 : 아유르베다와 경락 마사지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과천대학교.
- 김문선(2009). 여대생의 아유르베다의 바타 체질과 사상체질의 소음인 체질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미선(2008). 국내 에너지그램 연구에 관한 동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21(1), 1-20.
- 김미숙(2006). 아유르베다 테라피를 이용한 카파체질의 비만관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순분(2007). 아유르베딕 요가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비만도 및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승희(2011).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연태(2014).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의 양생론 비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김영관(2004). 아로마세라피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김영미(2009). 사상체질과 아유르베다 체질에 따른 피부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김재옥(2016). 아유르베다 만트라 명상이 노인의 심리치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김정호(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 453-484.
- 김해민(2009). 아유르베다 전신마사지와 폐경 후 여성의 스트레스 관련성,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2010). 아비얀가 아유르베다 테라피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아유르베다의 체질,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 류지혜(2008). 피부관리의 컬러테라피 적용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 박명지(2016). 8체질 진단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중운(1997). 고대 인도 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박황진(2013). 양생과 웰빙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배현지(2008).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한의학의 사상체질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69-186.

- 서지영(2007).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서지영(2010). <수슈르타-상히따, 수트라스타나>의 편역을 통한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손숙자(2006). 아유르베딕 시로다라 마사지가 스트레스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송진화(2016). 아유르베다에 의거한 약용식물 속새 추출물이 피부항산화 및 주름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신길란(2006). 아유르베다 오일마사지가 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안영임(2015). 아유르베다 요법을 활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안현정(2010). 아유르베딕 오일 마사지가 농촌여성의 우울,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윤연하(2010). 스킨케어에 위한 아유르베다 마사지 테크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윤정현(2008). 아유르베다와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경숙(2008). Om Aim 만트라가 피타체질 중학생의 공격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동희(2005). 아유르베다 처치를 병행한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두봉(2011). 실버세대를 위한 통합건강관리법 연구 :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미나(2015). 아유르베다 요법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이순영(2011). 아유르베다에서 도샤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치유적 전망,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에영(2008). 도샤별 칼라치유의 가능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영미(2004).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융의 심리적 유형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영애(2010). 아유르베다 체질과 청소년기의 여드름 상태에 관한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 이인(2004). 짜끄라의 각성법에 관한 연구 : 아유르베다 요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연(2007). 아유르베딕 아사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도샤균형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2012). 아유르베다 시로다라, 아비얀가 마사지가 활성산소 감소와 항산화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임정희(2009). 전통의학적 질병관에 의한 흥채진단 : 동양면역사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대학원대학교.
- 임주영(2011). 아유르베다의 3도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장현정(2011). 현대인의 증독에 대한 요가와 아유르베다 치유방법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정덕만(2015). 아유르베다 차크라 바스티를 이용한 성인여성의 복부비만과 신체활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정미숙(2006) 현대과학, 한의학,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본 웰빙 및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정미숙(2003). 아유르베다와 인본주의 심리학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정은숙(2005). 아유르베다의 세 도샤별 식이요법의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조은주(2009). 아유르베다 오일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주말선(2007). Ram, Hrim 만트라가 바타체질 초등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지수현(2015). 아유르베다 체질에 따른 탈모인의 모발관리행동,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 최경화(2008). 아유르베다의 바타, 피타, 카파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연구 : 사상체질과 성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금주(2009). 아유르베다오일 마사지가 스트레스와 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최민정(2011). 마르마 마사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최정명(2007). 아유르베다 오일이 모발과 두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혜린(2007). 아유르베다 체질에 따른 여대생의 식생활 태도 및 BMI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 허은영(2010). 아유르베다와 허브보충제를 이용한 비만여성의 체중관리 및 혈액성상의 개선효과,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황경숙(2006). 리모넨이 함유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아유르베다와 림프드레나주 마사지의 비만감소효과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지현(2008). 아유르베다 체질 유형에 따른 아시나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황지현(2011). 아유르베다식 프로그램 중 샷뜨바 다이어트와 체질유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특징과 적용효과,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Diener, E., Shu, E.,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McCrae, R., &Costa, P. T. (1991). Adding Liebe und Arbeit: The full five-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2), 227-232.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on the study of Ayurveda in Korea

Kim, Yeong-Kyu* · Youn, Chun-Sung**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E-mail : kairostoday@hanmail.net)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taryoun@hanmail.net)

This study is conducted in order to current status and trend of research on domestic Ayurveda through master's thesis related to domestic Ayurveda.

A total of 58 theses were analyzed, however 17 theses among 77 theses which is not related to theme and 2 uncertain theses were excluded. It was deduced by searching it 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rough website of RISS.

Ayurveda was organized through the history of over 5,000 years in traditional medicine in India. Ayurveda is being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beauty industry as well as alternative medicine.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and not actively researched compared to its usefulness. Therefore, this researcher analyzed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in order to standardize Ayurveda and lay the groundwork for active research.

As results of the study, it has been researched continuously since 1997, in particular, master's thesis was decreased. However, doctor's thesis has been researched continuously. Therefore, it is expected to see qualitative growth in the future.

Second, the most activated field for Ayurveda in major was beauty industry. Counseling psychology and Korean medicine was followed. Third,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was the most part in study method.

In addition, health and beauty was mostly researched in practical approach for each title.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it is required to develop standardized scale in order to develop Ayurveda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applied in a variety

of fields if research scope will be expanded.

Also,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possibility for cogniti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velopment if Ayurveda utilized program is developed through program research study.

This study has limitation in difference from a total of study on Ayurveda including academic journal. However, it has significance that trend analysis for domestic Ayurveda is firstly conducted.

Keywords : Ayurveda, Master Doctorate Dissertation, Analysis of trend